

고흥군, 1000만 관광객 찾는 '미식 도시' 조성한다

영업주 자율실천·인증제 등 4대 중점 과제 수립해 추진 지역축제 활용 볼거리 공존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도

고흥군이 오는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 목표에 발맞춰 '천만 관광객이 찾는 미식 고흥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흥군은 풍부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4대 과제는 △영업주 자율실천 3대 과제 목표 달성 △8품 9미를 활용한 지역축제 향토 음식 부스 운영 △음식점 인증제도 확대 추진 △고흥 대표음식 활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12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고흥의 맛을 '미식 고흥'이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 영업주 자율실천 3대 과제를 통해서도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실천 유도, 화장실 청결 유지 및 관리, 잔반 재사용 금지를 목표로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동 드론쇼, 고흥유자축제 등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운영,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보급률, 전통 방식의 생선소불구이 시설 현대화로 갖춘 경쟁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볼거리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미식 관광 선진지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식 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흥을 찾는 관광객 수를 대폭 증가시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소득 증대 효과까지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식 관광의 거점 도시로 자리



고흥군이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미식 고흥 조성'을 추진한다. 고흥맛집 한상차림. 고흥군 제공

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는 566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고흥군은 5개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고흥군은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당일 1만원, 숙박 3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팸투어 활성화, SNS 온라인 홍보 강화 등 다양한 관광진흥 사업을 병행한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시 '안심홈세트' 지원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정 대상

순천시가 10일부터 오는 3월11일까지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200가구에 △LED안전호루라기 △창문잠금장치 △택배송장지우개 △호신용스프레이 △도어락지문방지필름 등 안심홈세트 물품 5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 주민등록을 둔 65세 미만 여성 1인가구 혹은 한부모가정으로, 여성범죄피해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순위에 맞춰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은 2007년 이후 출생한 여성청소년이 포함된 법정한부모가정만 지원 가능하며, 여성범죄피해자는 1인 가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가족복지과 담당자 이메일(yonaa0221@korea.kr)로 제출하거나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봉암사 이어재' 전남민속문화유산 지정

고흥군은 '고흥 봉암사 이어재'가 전남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흥 봉암사 이어재는 고흥군 과역면 석봉리 가산마을에 소재한 김녕김씨 재실(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로, 지난 2019년 고흥군 향토유산 제5호로 지정돼 관리되어 오다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남도 민속문화유산(民俗文化遺産) 제57호로 지정됐다.

고흥 봉암사는 1826년에 건립된 사당으로, 김녕김씨 고흥 입향조인 영동명부사 김준(金準)과 그의 증손 참판 김구룡(金九龍), 증조조참의 박은춘(朴殷春), 병조참의 박응수(朴應秀) 등 네 명의 인물이 배향됐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됐지만, 1905년에 후손들인 김인석, 김두형, 김종현, 김용석 등의 노력으로 이어재가 재실로 먼저 건립돼 향사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어재는 조선시대 선현 제향 공간인 사우의 강당 겸 재실로서 건물의 상량문을 통해 김준과 김구룡에 대한 행적, 봉암사의 휘철, 그리고 1905년 이어재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후손들인 김인석, 김두형, 김종현, 김용석이 힘을 모아 4칸 집을 엮어 데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지낼 곳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문서와 족보 초고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종종 모임 장소 역할 외에도 족보 발행 등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 민속유산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개최 탐진강변서 농심줄놀이 등

장흥군은 11일 탐진강변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율놀이, 투호 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등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5시부터는 농심줄 놀이, 풍물공연과 함께 분행사인 달집고사, 달집태우기가 진행된다.

우리나라 세시풍속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농심줄 놀이'는 한마음, 한뜻으로 농심줄을 감고 풀며 소원을 비는 전래 놀이로, 관람객과 지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순서다. 이어 축제의 대미인 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우는 달집태우기가 진행된다. 군은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당국과 협력,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주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

보성군, 마을 안녕 기원행사 연다 달집태우기·갯귀신 제사 등

보성군은 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마을 고유의 세시풍속 행사가 보성 관내 곳곳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대보름인 12일을 전후로 각 마을 특색에 맞게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마을 당산굿 등 마을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11일 보성읍에서는 푸르미예술단 주관으로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다향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된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민속 체험, 판굿,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오곡밥 나눠 먹기 등 신명나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12일 읍이면 종합복지관 공터에서는 마을 제사, 달집태우기 및 떡국 나눠 먹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장좌마을 일대에서는 벌교 장좌기반이 별신제 민속보존회 주관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 기원하는 갯귀신 제사가 펼쳐진다. 보성=양중수 기자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해풍을 머금은 생썩을 수확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봄 향기 가득" 여수 '거문도해풍썩' 출하 시작

여수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거문도해풍썩'이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거문도는 다른 지역보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 썩을 보름 가량 일찍 수확한다. 이에 생썩은 2월 중

순에서 3월 하순까지, 가공용 썩은 4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출하된다.

시는 거문도해풍썩 브랜드 강화를 위해 사업비 1억900만원을 투입, 농가에 규격 포장재, 적기출하 물류비, 드론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거문도해풍썩으로 만든 썩떡과 썩차 등 가공제품은 로컬푸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www.gmdssuk.com)에서 연중 판매되고 있으며, 구매 문의는 거문도해풍썩영농조합(061-644-6968)으로 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신대도서관, 음악회·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책과 우주, 애니메이션' 주제 내일 오전 10시 선착순 접수

순천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신대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책과 우주,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신대도서관의 대표 공간인 책마루에서 펼쳐지는 책마루 음악회는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부터 펼쳐진다. 애니메이션 OST와 클래식을 결합한 음악회에서는 앙상블 보니의 연주로 모차르트부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까지 다양한 곡을 선보인다.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강당에서는

'아름에서 아이언맨까지 그리고 누리호'라는 주제로 미래 에너지와 우주항공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강연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추연석 박사는 키스트 출신 원자력 이해증진 강연자로, 다양한 연령대가 알기 쉽게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와 우주항공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대도서관 1층에서 도서관 안내를 맡아 인기를 끌고 있는 AI 스마트 안내 로봇 '데미'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별봉공작실에서는 AI 테마를 접목한 미래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로봇과 AI에 관심 있는 초·중·고생부터 중학생들이 대상이며 AI 스마트 로봇 체험과 도서관 안내 시스

템을 제작해 본다.

오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올림극장에서는 '금요 애니극장'이 열린다. 금요애니극장은 다양한 연령층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인사이드 아웃, 스프레의 문단속 등 수상 경력이 있는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신대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대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행사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신대도서관(061-749-4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